

2016 JANUARY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6.01.20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2015년 6월 29일(월)부터 30일(금)까지 2일간 제 3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술대회 및 2015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한국의 5개국 26명의 한국학논문이 소개되었다. (관련기사 p.7)

우즈베키스탄
(관련기사 p.2)

제 3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술대회 및 2015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 제 7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

키르기스스탄
(관련기사 p.3)

키르기스-한국대학 국제태권도대회 입상, 키르기스-한국대학 체육대회, 제주도 3개 대학 유학설명회

타지키스탄
(관련기사 pp.4-5)

제 6회 한국어백일장 및 시화대회, 2015 한국의 날, K-POP 월드페스티벌 타지키스탄 예선, 10회 한국어말하기대회 외

카자흐스탄
(관련기사 pp.6-8)

2015 제 2차 한-카 실�크로드 오픈포럼, KF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569돌 한글날기념 한국학포럼, AKS 중핵대학 선정 외

* 이 뉴스레터는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kaznks.kz>)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kaznks.kz>
E-mail: cks@ablaikhan.kz

우즈베키스탄

제 3 회 중앙아 한국학학술대회

2015년 6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2일간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이하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되었다.

1일차에는 그랜드미르 호텔 회의실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하고 중앙아 한교협과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공존의 역사, 상생의 문화: 21세기 실크로드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희길 소장(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과 김소희 참사관(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의 축사에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한국 등 5개국 26명의 한국학 논문 23편이 소개되었다.

2일차에는 타슈켄트 세종학당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한국학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소개하고,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사업 계획을 논의하였다. 차기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공동으로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과 <CIS 대학생 한국학논문집>을 발간하고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2015-2016년 사업으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국의 한국학 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7 회 중앙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

2015년 11월 28일 성균관대와 타슈켄트 세종학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 7 회 중앙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이 타슈켄트 그랜드미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4개국 19개 대학에서 6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올해의 백일장 주제는 ‘신뢰’였다. 수상자에게는 항공료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성균관대 대학원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는 등 특전이 주어진다. 한편 한국고전번역원은 인솔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고전해의강연 ‘조선왕조실록으로 읽는 한국의 역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1등은 바이베코바 악토르긴(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등은 라흐마조다 자혼기르(두산베 1세종학당)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뛰어난 글솜씨와 반짝이는 창의력으로 훌륭한 작품성을 가진 글의 표현에 심사위원들은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석규 처장(성균관대 국제처)은 매년 참가생들의 한국어 실력 또한 훨씬 좋아지는 만큼 글제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중앙아시아 성균관글백일장’은 본래의 취지대로 한류열풍, 한글 전파와 고려인 후손들과 소통이라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

국제태권도대회 입상

키르기스-한국대학 태권도팀(감독 윤영수)이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태권도대회에 참석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2015년 7월에 개최된 전주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서 태권도팀 이 안젤리나(3년)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서 올라르베크(3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메달을 획득한 두 선수는 키르기스-한국대학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윤영수 감독의 지도하에 배우기 시작한 선수들이어서 그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키르기스-한국대학 체육대회

2015년 12월 키르기스-한국대학 전체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여한 체육대회가 비슈케크 소재 Sun City 체육관(키르기스스탄 태권도국가대표팀 전용)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학생들의 친목 도모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 행사는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마련한 점심을 먹으며 선후배간의 우의를 다졌다. 특히 ‘사물놀이팀’, ‘K-POP 댄스팀’, ‘한국전통무용팀’ 등 평소 실력을 다져온 동아리 팀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기량을 뽐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제주도 3개 대학 유학설명회

2016년 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의 키르기스스탄 유학설명회가 키르기스-한국대학 주관으로 비슈케크 소재 자나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를 위해 강영훈 국제교류처장(제주대), 김신효 교수(제주한라대), 장경훈 교수(제주관광대)가 참석하여, 각 대학의 다양한 유학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19일에 진행된 유학설명회에는 정병후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가 본 행사에 참석한 많은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는 키르기스스탄 소재 많은 대학생들과 쉬콜라 학생들이 참석하였는데, 키르기스스탄도 중앙아시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 유학에 대한 열의와 한류열풍이 강하게 일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타지키스탄

제 6 회 한국어백일장 및 시화대회

2015년 10월 10일(토) 타지크 국립외대 대강당에서 한글날을 기념하여, 계명대가 주최하고 두산베 1·2 세종학당이 주관한 ‘제 569 돌 한글날 기념 제 6 회 타지키스탄 계명대 한국어 백일장 및 시화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엄기영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와 코심조다 이디굴 타고 타지크 국립외대 총장, 박상득 재타지키스탄 한인회 총무가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해주었다.

백일장은 <내가-다면/된다면>이라는 주제로 90분 동안 원고지(중급 600~800자, 초급 300~500자)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시화는 ‘보름달’(이종문), ‘콩 너는 죽었다’(김용택), ‘흔들리며 피는 꽃’(도종환), ‘아기와 나비’(강소천), ‘행복’(나태주) 중 1개의 시를 선택하여 시화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백일장 및 시화대회에 총 173명(시화 128명, 백일장 4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한국어로 배운 실력을 뽐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감성과 감성으로 독창적인 내용을 보여주고자 하는 참가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백일장 중급부문 1등 수상자는 계명대에서 1년 동안의 어학연수와 기숙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으며, 2등과 3등 학생들은 6개월 동안 어학연수와 기숙사를 제공받는다.

학생들에게는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2015 한국의 날

2015년 12월 12일 타지크 국립외대 대강당에서 한국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날 엄기영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 코심조다 이디굴 타고 타지크 국립외대 총장, 살리모프 노시르존 타지키스탄 친선협회 회장, 우크라이나대사, 아제르바이잔대사, 이란대사, 벨라루스대사대리, 주재국 외교단, 세종학당재단의 손우성 대리와 김하영 선임, 이창섭 재타지키스탄 한인회 회장 등 다수의 귀빈이 한국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오후 1시부터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고리던지기, 투호, 팔씨름 등 총 5개의 부스를 운영하였다. 약 500명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였다. 동시에 한국의 스포츠, 한옥, 자연, 문화, 음식 등을 보여주는 사진전도 운영하며 여러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오후 3시부터는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한국의 날을 위해 준비한 난타, 부채춤, 태권도, K-POP, 패션쇼, 전통혼례식 등 총 12팀의 한국문화 공연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타지크 국립외대 학생들이 조선시대의 설날을 배경으로 한복패션쇼를 선보였다. 왕과 왕비를 시작으로 서당, 옛장수, 청춘남녀, 함, 신랑신부 등 한국만의 다양한 스타일을 내외빈들에게 선보여 큰 갈채를 받았다.

이번 한국의 날 행사는 현재와 과거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새로운 한국을 보여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타지키스탄

K-POP 월드페스티벌 타지키스탄 예선

K-POP 월드페스티벌은 세계 67개국 글로벌 예선전을 통해 뽑힌 각국의 보컬과 퍼포먼스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펼치는 경연이다. 국가별 예선을 실시하고 1차와 2차 본선에서 K-POP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팀이 한국에서 펼쳐지는 K-POP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된다.

2015년 7월 4일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하고 두산베 1·2 세종학당이 주관하여 K-POP 월드페스티벌 타지키스탄예선을 실시하였다. 보컬 9개팀, 댄스·퍼포먼스 12개팀의 총 21개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타지키스탄 예선에는 축하공연과 행운권추첨도 있어서 응원하러 온 가족, 지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보컬 및 퍼포먼스 팀은 본선 진출을 위해 팀색깔에 맞는 가장 실력과 기존의 안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 퍼포먼스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무대를 압도하였다. 보컬부문에서 카니발의 ‘거위의 꿈’을 부른 카리모프 아크바르, 퍼포먼스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의 ‘We are Bulletproof’ 안무를 보여 준 사타로바 जि피라 외 3명이 우승을 차지했다. 매년 향상되는 참가자들의 수준과 실력을 응원하며 타지키스탄에서도 우승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제 10 회 한국어 말하기대회

2015년 6월 13일 타지키스탄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관(두산베 2 세종학당)에서 말하기대회 본선이 있었다. 사이피딘 나자르조다 타지키스탄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축사와 엄기영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의 격려사로 시작된 제 10 회 타지키스탄 한국어 말하기대회는 세종학당재단 주최로 열렸다. 초, 중급 100여명의 학생들이 선발전을 통해 최종 13명이 지역예선전을 펼쳤다. 타지키스탄 지역예선에서 1, 2, 3등과 장려상 3명이 수상했으며, 중급 1등 수상자에게는 재단의 심사 후 선발되면 한국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제 7 회 중앙아 성균한글백일장 입상

2015년 11월 28일 타슈켄트 그랜드미르호텔에서 개최된 “제 7 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에서 두산베 1 세종학당에서 중급과정을 배우고 있는 라흐마조다 자혼기르가 2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어를 배우지 1년밖에 안 됐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카자흐스탄

산학협동재단 장학금 수여식

2015년 10월 14일 카자흐 국립대에서 한국의 산학협동재단이 본교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산학협동재단은 1974년 3월 한국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재단법인으로 창립되었다. 산학협동을 통한 한국의 경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산학협력포럼, 정책연구과제발굴, 대학산학협동교육, 전문가네트워크구축)와 창의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국제교류 분야 등에 지원을 해오고 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김무한 산학협동재단 사무총장과 황영삼 한국외대 교수가 참석하여, 화학, 물리, 생물, 국제관계, 한국학을 전공하는 총 10명의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1인당 1,200달러)을 전달하였다. 장학금 수여 후 이재완 민주평통 중앙아시아지회장의 축사와 알리모바 카리나(한국학과 4학년)의 감사말이 이어졌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좋은 전통을 남기며 한층 분발하여 미래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고, 카자흐 국립대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위상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신한은행 희망재단 장학금 수여식

2015년 11월 9일 카자흐 국립대에서 신한은행 희망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진출해 있는 신한은행(법인장 최명규)은 매해 알마티 주요 대학의 학생들을 상대로 장학금 지원을 해오고 있다.

올해로 7회째 맞고 있는 신한은행 희망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에서 카자흐 국립대측은 그동안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한은행 최명규 법인장에게 카자흐 국립대 80주년 기념 감사메달을 수여했다.



고려인의 꿈 재단 장학금 수여식

2015년 11월 24일 카자흐 국립대에서 고려인의 꿈 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고려인의 꿈 재단은 그간 CIS 지역 국가들의 고려인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금년으로 4회째를 맞이하였다.

한영수 고려인의 꿈 재단이사장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담겨있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는 장학금 수혜 학생들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2015년도 신학기 들어서 한국학과에서는 외부 지원을 통한 장학금 수여식이 벌써 3회째 진행되었다. 이는 동양학부 내 다른 학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횟수이며, 한국과 알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한국학과에 대한 관심의 증표라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2015 제 2 차 한-카 실�크로드 오픈포럼

2015년 12월 4일 주알마티 한국총영사관에서 카자흐 국립대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주관으로 ‘2015년 제 2 차 한국-카자흐스탄 실�크로드 오픈 포럼’이 개최되었다. 근본적인 취지는 행사를 주관하는 두 대학이 학술교류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한국학 발전을 주도해 나가자는 데에 있다.

이석윤 참사관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두 대학의 교류 협력이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 바티르하노바 가우하르(카자흐 국립대)는 “알마티 도로명과 그 의미”라는 주제를 통해 알마티 주요 도로명의 유래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 미국 등의 거리명과 알마티 내 주요 거리명들을 비교하여, 그에 따른 문화적 차이와 거리명의 유래, 원인들에 대해 조명했다. 알마티의 도로명은 러시아식에서 카자흐식으로 개칭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카자흐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일환에서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발표를 통해 강조가 되었다. 두 번째 발표자 두미세바 알루아(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는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이미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90 명의 카자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광, 문화, 음식,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카자흐인의 눈에 비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소개했다.



KF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2016년 1월 8일 주알마티 한국총영사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장학금은 전승민 주알마티 한국총영사를 통해 전달되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카자흐 국립대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대학원생들과 이병조, 장호중 교수가 각각 학과를 대표해 참석했다. 또한 김종일 알마티 한국교육원장과 정외영 알마티 무역관장이 자리했으며, 총영사관 직원들도 함께 장학금 수혜자들을 축하해 주었다.

올해는 카자흐 국립대 박사과정 1명과 석사과정 4명,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석사과정 3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국내외 기관 및 단체들에 의한 학부생 장학금이 일반적으로 몇 백 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금액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장학사업의 취지는 우수한 한국학 인재들을 대학원 과정에 적극 유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카자흐스탄 내 한국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나가자는 데에 있다. 이러한 지원은 대학 일선에서 대학원 진학업무를 수행하고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외부 지원이고 투자이기는 하나 우수한 한국학 인재를 양산하여 향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과 우호 증진에 기여할 인재 키운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카자흐스탄

569 돌 한글날기념 한국학포럼

2015년 10월 9일(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569 돌 한글날과 한국학센터 개원 3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학 교원 및 학생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우시케노프 동양학부 학장의 인사말과 이석운 주알마티 총영사관 참사관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한글날을 기념하여 동영상 “한글의 나라”를 감상한 후, 김 아나스타샤 한국학과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가치 창출: 본교 한국학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한국학센터를 개설하여 지난 3년간 진행한 한국학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한국학센터는 2012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유치하여 학술지 <카자흐스탄 한국학>,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 <CIS 대학생 한국학논문집>과 소식지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를 발행하고, 학술대회와 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카자흐스탄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발표가 끝난 후 최명규 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장이 신한은행 장학증서(3명)를 전달하였고, 이석운 참사관이 재외동포재단 장학생(1명), 고려인의 꿈 재단 장학생(4명), 한국학센터 장학생(4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이 외에도 학업 의욕을 고취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대학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학원 장학생(박사 1명, 석사 3명),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장학생(석사 3명), 한국학센터 R/A 장학생(2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우수자 시상을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한국학포럼을 통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를 마친 후 장소를 옮겨 한국-중앙아시아 오픈포럼 2015~2016 학년도 1차 발표회를 가졌다. 장호종 교수(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는 “공존과 소통의 한국학: 본교 한국학센터의 과제”를 주제로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향후 사업 계획을 소개하였다.



AKS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선정

2015년 7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수행한 씨앗형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 향후 5년간 연 1억 2천 2백만원씩 총 6억 1천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중핵대학 육성사업은 해외 대학 중 한국학의 역사가 깊고 기반이 탄탄한 대학을 지원하여 한국학의 핵심기관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최초로 선정되었다.

